

# 만해마을 준공·심포지엄 등 행사 다채

## 제5회 만해축전

만해 스님이 26세에 출가한 도량인 설악산 백담사. 이곳에서 8~10일까지 열린 '제5회 만해축전'은 올해 2천여명의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만해마을'에서 성황리에 회향했다.

이번 행사는 8일 고은·김남조·신경림·황동규·이근배·정현중 등 원로·중진 문학가들을 비롯해 5백여 명이 참여한 '시인학교 입교식'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고은 만해축전 대회는 "만해 스님이 남긴 문학과 종교, 민족정신의 존엄성은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뿌리내릴 만큼 확고해졌다"며 "그의 간절한 시혼과 치열했던 민족정신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느껴보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9일 열렸던 '만해마을 준공식'과 '제 7회 만해대상 시상식'이었다. 만해마을의 공식 개관을 알리는 준공식에는 조동룡 만해사상실천사업회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녹원 직지사 회주 스님,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의 축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법어가 있었다.

이어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만해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명화부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학술부문), 소설가 조정래 씨(문학부문), 이재주 서울대 교수(예술부문)가 각각 받았다.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문학·학술·서예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는데 이중

## 김대중 前대통령 등 4명 만해대상 수상 문학·서예 전시 불교주제 학술대회 개최



◇8일 개원한 만해마을 내의 만해사서원본전에서 불상점안식이 봉행됐다. 사진=박재원 기자

만해와 불교를 주제로 한 3개의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백담사=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만해의 정치·사회사상

### 심포지엄 I

△한운운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윤세원 인천전문대 교수)= 만해 스님의 핵심가치인 자유는 원천적으로 불교적 가치이고, 이 종교적 가치가 정치적 가치로 외연이 확장되는 논리구조의 버팀목은 바로 깨달음과 무이라는 연가론적 인간관이었다. 이런 논리구조는 다양한 그의 활동영역과 모든 실천운동들 통해 주교 내적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축이었고, 그의 철저한 자주정신의 맺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진화론과 만해의 사회사상(유승우 중앙승가대 교수)= <조선 불교유신론>의 분석을 통해 사회진화론과 만해의 사회사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요약해 보았다. 첫째, 만해는 사회진화론을 민족독립과 불교개혁이라는 실천적 목적에서 수용했다. 둘째, 만해의 불교개혁의 핵심은 청사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불교유신론>은 크게 두 가지 단계, 즉 불교사상과 사회진화론 사이의 사상적 모순 및 사회진화론적 불교유신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만해 한운운의 불교적 '노마돌로지'에 나타난 근대성과 탈근대성(장시기 동국대 교수)= '노마돌로지(nomadology)'는 '어디로 가든지 당시 마음대로' 즉 결집없는 것을 뜻한다. 만해의 삶은 끊임없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 속에 있었다. 이런 만해의 삶과 문화, 불교사상을 우리의 삶과 지식의 인식론적 체계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전지구적인 탈근대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주의가 들려주는 노마돌로지를 그들의 이론과 실천에 끌어들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적 근대로부터 벗어나 전 지구적 탈근대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만해 한운운 선사사의 민족정신에 대하여(전보삼 신구대 교수)= 만해의 민족주의 사상의 본질적인 기본 원리는 불교적 인식체계인 대승 불교의 보살정신에서 출발해 자유를 인간본질의 기본적인 요소로 파악했으며, 인간은 또한 기본적으로 평등한 존재란 불교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동시대의 자강과 지식인들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 심포지엄 II

## '조선불교유신론'의 21세기적 의미

△'조선불교유신론' 집필의 배경과 개혁방향(정광호 인내대 명예교수)= 땅에 떨어진 조선 말기불교의 위상과 인권을 회복시키고자 쓴 글이 바로 <유신론>이다. 내용은 왕생극락을 목표로 하는 까짜 열불을 사칭한 것, 불교의 참체성을 포교의 부재에서 찾은 것, 미신적 요소가 많은 행위를 일체 없앨 것, 승려의 생활을 신도의 보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립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총 17장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불교유신론'의 소회(鄭維) 폐지론과 선종의 정체성(서재영 동국대 강사)= 선종의 입장에서 불패 수많은 소상을 묘사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불법의 대의로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불교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해는 소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종의 사상적 내용을 회복해 선종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불교유신론'과 현대 한국불교(김광식 부천대 교수)= <유신론>이 현대 한국불교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해봤다. 첫째, <유신론>에서 비판받았던 당시 불교 현실을 수용하기 이전에 그 당시 불교사를 복원,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유신론>의 정신은 재평가 돼야 하며 현대 한국불교를 <유신론>과 같은 잣대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2, 제3의 <유신론>이 집필, 간행돼야 한다.

△근대계몽철학과 '조선불교유신론'(허도학 경남신논 논설위원)= 만해는 사회진화론을 중심으로 자유·진리·진취·파괴 등의 정신을 갖는 근대계몽철학의 제요소를 받아들여 불교유신론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동시에 전통적 호국불교사상도 받아들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불교유신론'에서 근대적 세계관 읽기(이도홍 한양대 교수)= 만해는 중도(中道)의 사유를 하면서도 이분법적 사유를 하고, 승려로서 진여(眞如)의 불가사의함을 인정하면서도 진리의 확정성을 옹호하였으며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하나임을 알면서도 인간 중심의 사유를 전개한다.

##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 '禪 수행' 특강

7일 전국비구니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선 수행 특강'에서는 비구니 수행의 역사적 정통성이 강조했다. 19일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기념으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해제철임에도 불구하고 500여 비구니 스님을 비롯

한해 6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만불전을 가득 채웠다.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회장 영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선방 비구니 스승들이 한자리에 모인 예는 없었음"이라며 "이런 선 특강을 계기로 해제철에는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듣는 법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 한국禪 역사·조계종 정통성 조명



### ■ 구산선문과 조계종종-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

조계종종은 신라하대에 탐마 선지(禪旨)를 수용하면서 형성됐다. 당나라에서 탐마선을 채택하고 돌아온 신라고승들이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이르러 선문을 개창했다. 이때의 선문을 구산선문이라한다. 구산선문의 개산종 중 제일 먼저 당나라에 가 선법을 전수하고 귀국한 분은 도의 선사다. 도의선사 이후 많은 개산종들이 신라 화엄종풍의 기반 위에 선법을 선양해 신라 선찰의 사력은 화엄종의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해거국사, 대각국사, 보각국사 등의 비문에 남긴 기록들은 구산선문이 조계종으로 성립했음을 보여준다. 또 무염선사의 법어, 고려 말의 고승비문 등에 '조계종'이 명시되어 있어 조계 종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간화선이 불교에 끼친 영향-해국스님(제주도 남국선원 선원장)

어려 종단, 수행법이 공존하는 가운데 간화선은 한국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간화선에서 화두는 있는 그대로의 참 나를 보려는 참구(參究)이다. 참 나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보기가 아니라 '들어보다', '냄새 맡아 보다'라는 우리말처럼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다.

화두는 말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자체도 아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참선 수행에는 3가지 마음준비인 대심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본심(大廣心)을 강조해 왔다.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각자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되며, 한 생각 변하는 것으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 선교생수의 필요성-명성스님(문선승가대 학장)

선(禪)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며 마음은 선의 본질이다. 언어문자로 표현된 것이 교(敎)이고 언어문자 속에 있는 묘지(妙旨)는 곧 선이다. 그 묘지만 꿰뚫어 얻으면 어느 것이 선 아닌 것이 없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근본이념인 계(戒), 정(正), 혜(慧) 삼학(三學)을 고루 닦는데 수행의 요점이 있다. 마음이 만유의 근본이므로 선이 불교의 근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묘한 소리를 지닌 종이라고 할지라도 울리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비구니들이 이 종을 울리기 위한 방망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처님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참선하는 수행풍토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

### ■ 한국선의 역사-해주스님(동국대학교 교수)

처음으로 신라에 선법을 전한 이들이 법장스님과 신행스님이라면 최초로 남종선(조사선)을 전한 선사는 도의스님이다. 마조도일스님의 제자 서당지장스님으로부터 심인을 얻은 신라 말 도의스님은 가지선문을 형성한다. 이후 고려 초까지 구산선문이 개창됐고, 이는 고려 중·후기에 조계종으로도 불리고 있다. 고려중기의 보조지눌스님은 사찰선파로서 간화선을 도입하여 간화경전문을 시설하고 선교를 회통시켰다. 지눌은 이른 진각혜심은 간화선을 크게 진작시켰으며 비구니 선사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선교도총서'이 뒤 편정스님이 선의 입장에서 교를 회통했으며, 후정스님과 그의 문하이기도 했던 부휴스님의 문파가 크게 번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리=한성희 기자

문의 및 접수 www.bodh.net 055) 331-6118 / 011) 9557-8730

근본불교 Saṅgha 근본불교학

# 제15기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밧싸나(참선) 이론과 실습 수강생 모집

### ● 행복은 좋은 느낌입니다.

행복은 좋은 느낌입니다. 행복이란 느낌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상태는 행복과 불행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맑고 건강한 마음은 보다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해 줍니다. 파란 마음 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묘된 마음을 갖게 아름답게 정화하며 지친 마음에 휴식을 취하며 지나는 삶의 흔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밧싸나 또는 참선이라고 알려진 불교수행을 통하여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 ●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인식대상에 구속되는 것만큼 민족지수는 낮아지고 고통은 증가합니다. 인식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민족지수는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늘어납니다. 부처님은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통하여 지나는 삶의 흔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 한국불교 근본불교학이 의망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 닦는 수행입니다. 마음 닦는 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먼저 수행한 후 교학을 익히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 이래 대승불교·선불교에까지 계승된 부처님 교육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승불교·선불교의 전통 계승지려는 한국불교가 선교학·후수행이라는 부파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먼저 깨침의 씨앗을 심고 난 뒤에 거름을 주고 길을 매는 것이 순서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길을 매고 밭을 가꾸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소승·대승·밀교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다고 삶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전통 수행법에 기초해서 실천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근본불교학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창의력이 나오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효성이 높습니다. 근본 불교학에서는 부처님이 개발한 수행의 이론과기법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행자들이 당신을 부처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근본불교학은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희망입니다.

### ● 사이버 수행교실 개설

근본불교학은 사이버 수행교실을 개설합니다.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밧싸나·참선을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부처님 정통 수행법을 배우고, 수행을 점검받고, 공감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자기 자신을 부처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강의내용, 지도법사, 교재 등 모든 내용은 15기 근본불교학 수강교실과 동일합니다.

- ◆ 기 간: 8월 31일 ~ 12월 7일(주 1회 40분 이론수업 80분 실습 및 지도)
- ◆ 입 학 식: 8월 31일 오전 11시 다보선원 보리수 아래
- ◆ 대 상: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밧싸나·참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불교를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
- ◆ 내 용: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밧싸나·참선의 이론과 실습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구조와 철학적 관점 / 인도불교사
- ◆ 지도법사: 불-이바(本願) / 교재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습

### 장소 및 시간

장 소	요일 및 시간
서울 지혜선원 (교대역 5번출구)	월요일(오후반) 2시 ~ 4시
	월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화요일(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화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대구 지혜선원 (봉덕동)	목요일(오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목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부산 다보선원 (신어산)
사이버 지혜선원 (인터넷)	월요일, 금요일 수행이론과 실습 수요일 부처님의 철학적 관점

## 부처님 최초의 말씀

부처님은 깨달은 직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모든 불교 경전의 원형 12년기로부터 시작해서 중도 4성제 8정도 3법인 5은 차제법설 불처사설법 설법론 등 모든 불교 개념과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룬 후 오도 승을 하고 녹야원으로 가서 최초의 수행지도와 인기 그리고 전법선교와 수행법 등 불교 교단이 형성되는 중요한 과정에 상세하게 기록된 모든 불교 경전의 원형인 초전법륜경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이 한편의 경전에 모두 담아 놓고 이후 45년 동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써 설명했다. 따라서 이 한편의 경전만 읽어도 팔만대장경에 등장하는 모든 경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경전이 모든 경전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언어로 쓰인 빠-리 대장경 출장 첫 장 첫째 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엔 불-하 빠-리(本願) 스님이 빠-리어를 한문 개념을 삼아서 한글로 번역했다.

## 불교 수행의 이론과 실제

20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한국 스님에 의해서 쓰인 부처님 정통 수행법(위밧싸나·참선)의 이론과 실습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밧싸나와 참선을 다룬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아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다. 부처님도 위밧싸나 수행을 했을 때 부처를 이루었고, 담마 해는 마 조입해 보지 지금까지 수행 등 역대 조사스님들이 모두 부처님 정통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단지 그 표현이 인도말로 위 밧싸나였고 중국말로 참선이라 했으며 했고 대하는 화두수 또는 간 화선이라고 이름붙였을 뿐이다.

이 한편의 책이 최선 행선 생활선 노동선하는 기본지식에서부터 수행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수행의 시작에서 부처를 이루 때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쓰여져 있어 수행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부처님으로부터 축적되고 수행자들 통해서 전해진 부처님 정통 수행법의 노하우들이 불-하 빠-리(本願스님)에 의해서 자세하게 쓰여졌다.